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9호 [루게 제24407호] 주제102(2013)년 12월 25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뜻깊은 12월 24일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526대연합 부대 지휘부를 방문하시고 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뜻깊은 12월 24일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526대연합 부대 지휘부를 방문하시고 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최룡해동지,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 서홍찬동지, 김수길동지, 박정천동지, 박태성동지, 김동화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2년을 자랑한 전투정치훈련성과로 맞이한 대련합부대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게양되어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대련합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대련합부대의 지휘관들은 뜻깊은 12월 24일을 맞으며 부대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부대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 주시며 명절을 맞는 부대의 전제 장병들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백두산혁명강군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건이였으며 우리 조국의



운명과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준 민족의 대경사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명군술, 무비의 담력으로 우리 혁명무력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

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하시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시여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초대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천만군민이 력사에 류례없는 폭풍우를 뚫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온 빛나는 년대기들을 영원히 잊지 말고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2월 24일을 뜻깊게 기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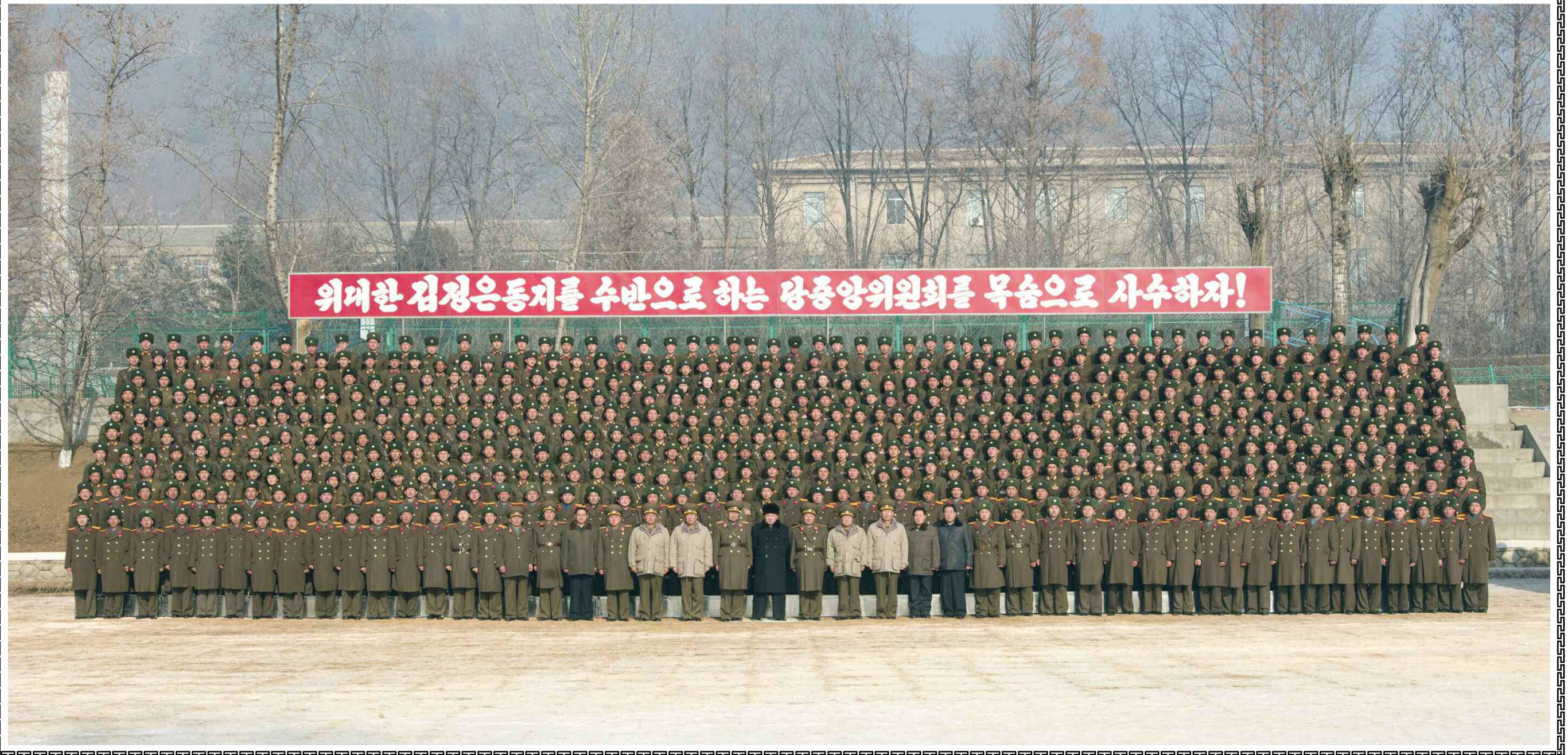
대련합부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수심차례의 현지도도를 받는 영광을 지닌 자랑많은 부대이다.

대련합부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여러 전투들에서 수많은 적의 유생력량과 전투기술기재들을 살상, 격파, 로획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으며 이 파정에 75명의 공화국영웅들을 비롯하여 많은 수훈자들을 배출하였다.

대련합부대는 전후복구건설의 나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사수하는 길에서 무비의 애국적인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백두산총대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2 면 으 로 계 속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무슴으로 사수하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12월 24일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 부대 지휘부를 방문하시고 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광중앙위원회를 무숨으로 사수하자!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부대력사의 갈피마다에 깃들여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평도와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대련합부대는 강위력한 무적의 전투대로로 장성강화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병사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담화를 나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 문헌을 보시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은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시였으며 군인들의 자애로운 아버지, 병사들과 언제나 함께 계신 유능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이시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대련합부대의 력대 지휘성원들과 부대가 배출한 영웅들의 사진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부대의 자랑찬 행로를 헤아려주시였다.

대련합부대에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이 부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의 성과로 빛내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작전지휘실들과 군사연구실, 권총사격관을 돌아보시면서 훈련실태와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에서 작전지휘실들을 당의 의도에 맞게 잘 꾸렸으며 군사연구실운영을 짜고들어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의 작전전투조직과 지휘능력을 부단히 높여가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자기 부대의 싸움준비에 대하여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에서 싸움준비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

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회관, 버섯재배온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정치사상교양사업과 후방사업실태, 부대지휘관리정형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부대장병들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에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뜻깊

은 기념사진을 찍은 군인들은 격정에 겨워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목매며 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저어주시였다.

대련합부대의 전체 장병들은 무적의 담력과 지략을 안겨주시고 한없는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한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되어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사회주의 조국을 철벽으로 지켜갈 충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김종세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평도자 박사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 김종세동지의 서거에 깊은
는 김일성상계판인이며 교수,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4일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2돐을 맞아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24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내각,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기관 일군들이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는 송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향연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앞에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땀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한평생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선군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바치신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할 줄을 몰랐을 때, 렬차보존실들과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수령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평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 씨야 《모스또 비크》 과학생산 연합체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평도자이신 어였다. 그 슈쇼브 총사령이 24일 내각총리 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 《모스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비크》과학생산연합체에서 선물을 보내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올레 봉주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24일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정은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그들은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기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주신 천출명장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섰다.

회의참가자들은 혁명평도의 전기간 송고한 병사편을 지니시고 인민군대의 후방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끝없는 헌신의 로고를 바쳐오신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기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군인생활항상과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음을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삼가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백두산천출위인들에 대한 만민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울음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인민군대의 후방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혁명실천으로 빛나는 영광의 행로

선군정치가 시작되던 잊지 못할 나날을 더듬어

력사는 어제를 통해 오늘과 미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1960년대말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시작된 력사적시기로서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며 선군시대의 영광찬란한 현재와 미래를 밑받침해

당의 령도는 혁명군대의 제일생명

주제 53(1964)년 6월 1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 사명감을 안으시고 당중앙위원회 청사로 들어오셨다. 이 뜻깊은 순간은 그이의 선군혁명명도실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중대한 계기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색은 그 나날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정치사상적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데로 집중되어 달리고 있었다.

1960년대는 참으로 간고한 시기였다.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한 나라들에서는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권을 포기하면서 제국주의자들과 흥정을 하고 타협을 하는 비굴한 행세를 거듭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 비하면 해위기후 미제의 침략행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려는 우리 나라에 비교하면 단숨에 달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대결판에 그 돈으로 양사랑을 만들라고 하면서 《알사탕》을 팔고 있었다.

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은 어중어중이들의 흐리터분한 머릿속에 당의 령도를 외면하고 개인에 대한 환상을 조성시키려는 위험한 사상독소의 위를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다.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권을 말할 때는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군대를 무장해제시키는 것이었다.

인민군대에서 오래동안 복무한 일군들도 아직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오직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당사업을 시작하시는 초창기에 벌써 천재적인 안목으로 실재를 예리하게 꿰뚫어보시고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권 확립의 필연성을 로차하셨습니다.

그이께서 우리 혁명무력을 당과 수령에게 붙여 충직한 불패의 혁명군대로, 일당백의 무적의 대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고 밤낮도무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시면서 기술훈신 크나큰 심혈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에 력력히 아로새겨져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특히 주제 58(1969)년 1월에 진행된 어느 회의 통하여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조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나날 인민군대의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

주요했다. 이 빛나는 년대기를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이 낳은 위대한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을 독특히 절감하게 되었으며 세계는 비범한 명장으로서는 우리 장군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특출한 실력을 력사적현실로 공인하게 되었다.

주제 53(1964)년 6월 1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 사명감을 안으시고 당중앙위원회 청사로 들어오셨다. 이 뜻깊은 순간은 그이의 선군혁명명도실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중대한 계기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색은 그 나날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정치사상적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데로 집중되어 달리고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색은 그 나날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정치사상적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데로 집중되어 달리고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특히 주제 58(1969)년 1월에 진행된 어느 회의 통하여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조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특히 주제 58(1969)년 1월에 진행된 어느 회의 통하여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조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특히 주제 58(1969)년 1월에 진행된 어느 회의 통하여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조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특히 주제 58(1969)년 1월에 진행된 어느 회의 통하여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조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혁명무력발전의 이러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59(1970)년 3월말 어느날 인민군총정치국의 책임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데서 기본은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혁명군대의 위력은 바로 군인들의 정치사상적우월성에 있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셨다.

군대에서 기본은 그 어떤 무기나 군사기술이 아니라 군인대중이며 군인대중에서 기본은 사상이다. 군인의 사상이 싸움을 결정한다는 우리 장군님의 군인중심의 무력관은 그때 벌써 현대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본법칙을 새겨주어 주셨다. 군인중심의 무력관에서 혁을 이루는것이 바로 모든 군인들을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할 때에 우리 당의 최고강령을 제시하시는데도 인민군에 깊은 관심을 두셨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바로 인민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군인대중자신의 심정에부터 열매를 맺었다.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군인대중중심의 무력관에 기초하여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만드는 것을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전군 김일성주의화를 군건설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시고 이끌어 주신

비범한 지략과 령군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주목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자리잡고 있는 보통강기슭에는 미제무장간첩 《푸에블로》호가 위대한 선군정치의 진리원소로 끌려와 있었다.

미국력사에 최대수치의 대명사처럼 불리우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항간첩비행기 《EC-121》사건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의 첫 시기 인민군대에 대한 군사적전적영도어 어떤 특출한 공적을 쌓으셨는가에 대한 훌륭한 대담을 주고 있다. 위대한 령도와 함께 선군정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1960년대말에 벌써 인민군대지휘사령관들은 나를 지도자로서 사면이 아니라 최고사령관으로 대하고 받들었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명장의 실력은 군대에 대한 정치사상적 령도와 함께 실천적지휘를 통하여 명백하게 증명되는 법이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우리 나라 령해에 처음으로 나타난것은 1968년 1월초였다. 나랑과 적대행위를 목적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1000여명의 이 배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은 배방으로 강화되었다. 그 기록한 자욱과 더불어 우리의 총대에 수령적사용정신, 총독관정신이라는 가장 고상하고 숭고하고 정의로 사상강령이 빛받치게 되었으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는 더욱 억척같이 다져졌다.

후날 외국의 한 이름난 군사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힌 군인대중중심, 사상중심의 무력관의 위대성에 탄복하여 이런 글을 썼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령군술이 오늘날 그로크 세계의 판신사로 되는것은 어디에 기인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무장력에 대한 그의 견해와 판신이 신성하고도 위대함이다. 그이께서는 군인중심론을 주장하고계신다. 이를테면 정중승리의 기본은 무기보다도 그 당파적인 군인이라는것, 즉 군인을 무장력의 주제로 보는것이다. 이것은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무력판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군에 대한 당적 령도, 정치적 령도의 전면적실현으로 우리의 총대는 자기의 혁명적정적중심의 무력관에 기초하여 인민군대를 선군정도로, 당의 군대로, 수령의 군대로, 총적임무로, 전군 김일성주의화를 군건설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시고 이끌어 주신

대성산 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화환 진정

1월 23일 우리 나라 령해에 깊숙이 들어왔다.

적들의 움직임을 처음부터 예리하게 추적하고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날 아침 인민군총참모부의 한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대로 해군사령부에서 그 배를 단속처리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그러시고는 그 배가 도주하거나 저항할수 있는 경우를 예견하여 나포전투를 빈틈없이 조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군에서 정비함과 어뢰정의 함포작전을 잘하며 공군에서 그들의 전투행동을 지원할데 대한 비범한 작전적명안을 밝혀주셨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우리 나라 령해에 처음으로 나타난것은 1968년 1월초였다. 나랑과 적대행위를 목적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1000여명의 이 배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우리 나라 령해에 처음으로 나타난것은 1968년 1월초였다. 나랑과 적대행위를 목적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1000여명의 이 배는

포로하였다. 이렇게 나포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는 원산항에 끌려오게 되었다. 이것은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의 행사였으며 민족적존엄과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용감한 자위적조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미제의 무장간첩선을 나포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회경》을 펴는 미제의 배를 나포한것은 력사상 있어본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해병들이 정말 장하다고 높이 평가하셨다.

극도로 당황한 미제는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면서 한차례의 전쟁을 치르기도 남을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이었다. 전쟁이 터지는것은 시간문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휘어안 군사적지략과 명군술로 총인참모부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우리는 원수들의 《보복》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침략자들을 타격소멸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 따라 적들이 덤벼들면 그 즉시 소멸해치워야 한다고 구체적인 작전적명안을 제시하셨다.

《푸에블로》호나포와 적들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군사적전적 령도는 자기의 령해에 대포로 11달만인 1968년 12월 23일 미제선군정도로, 당의 군대로, 수령의 군대로, 총적임무로, 전군 김일성주의화를 군건설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시고 이끌어 주신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우리 나라 령해에 처음으로 나타난것은 1968년 1월초였다. 나랑과 적대행위를 목적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1000여명의 이 배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우리 나라 령해에 처음으로 나타난것은 1968년 1월초였다. 나랑과 적대행위를 목적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1000여명의 이 배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우리 나라 령해에 처음으로 나타난것은 1968년 1월초였다. 나랑과 적대행위를 목적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1000여명의 이 배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우리 나라 령해에 처음으로 나타난것은 1968년 1월초였다. 나랑과 적대행위를 목적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1000여명의 이 배는

비행기로 잡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시고는 작전에 인입할 비행기도 선정해주시고 비행기편대도 무어주시였으며 비행사들이 전투정찰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전술적문제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셨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57돐을 경사롭게 기념하고있던 주제 58(1969)년 4월 15일 어리석게도 인민군대가 명절기분때 해되어있으리라고 오만한 미제침략자들은 이날 점심때를 리용하여 대항간첩비행기 《EC-121》을 우리 령해에 침입시켰다. 만단의 출격태세에 있던 우리의 추격기비행사들은 즉시 리륙하여 결정적인 타격으로 미제의 대항간첩비행기 《EC-121》을 공중에서 박살냈으며 기기에 타고있던 30여명의 적들을 황천계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현대공중전에서 우리 식 공중전법칙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위대한 령도의 슬하에서 날로 강화되고있는 우리 공군무력의 자랑한 파시였다.

우리의 용감한 비행사들이 미제의 대항간첩비행기 《EC-121》을 격추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는 《날아가는 《보복》 호가 격추되었다》고 하며 축하를 보냈다. 그러나 악에 배반한 미제의 반항적행위를 동반한 정치외교적 및 군사적 위협공갈로 우리 나라의 정세를 또 다시 전쟁적경계로 몰아갔다.

이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일군들을 만나시어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책동에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단속의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도록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적들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장악하며 그에 대처한 작전계획을 잘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미제침략자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과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때에는 살아서 항복이라도 할수 있었지만 이번에 무반항하게 달려들면 불을 즐기는 부나비의 신세가 되게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단호히 선언하셨다.

우리를 《보복》 하겠다고 떠돌던 미제는 저들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위대한 선군정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우리 인민의 철저한 반미의지앞에 기가 꺾이며 제풀에 주저앉고말았다.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나라들이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비위를 맞추던 그때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자랑하던 인민군대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마련된 이런 경이적인 군사기술들로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의 면상을 보기 좋게 잘갈고있었다.

력사는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영주제 105땅크사단에서 시작되고 시대의 흐름속에서 심화발전되어온

우리를 《보복》 하겠다고 떠돌던 미제는 저들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위대한 선군정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우리 인민의 철저한 반미의지앞에 기가 꺾이며 제풀에 주저앉고말았다.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나라들이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비위를 맞추던 그때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자랑하던 인민군대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마련된 이런 경이적인 군사기술들로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의 면상을 보기 좋게 잘갈고있었다.

력사는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영주제 105땅크사단에서 시작되고 시대의 흐름속에서 심화발전되어온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가 하나의 완전한 국가정치방식을 탄생시키고있음을 실감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특출한 정치군사적실력과 주체의 선군혁명명도사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그이를 당과 군대의 최고수령이 높이 받들어모실것을 열렬히 희망하였다. 이러한 해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쌓으신 탁월한 업적과 그이께서 지니신 남다른 정치군사적실력에 탄복하시어 당과 함께 인민군대사업을 직접 맡아 지도할데 대한 중임을 맡겨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후날 이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령님께서 1960년대말, 1970년대초부터 나에게 당과 대대사업을 직접 맡아 지도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과 대대사업을 직접 맡아 지도하시게 됨으로써 선군의 정치리념을 전사적범위에서 구현해나가는 선군정치가 시작되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정치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어 선군의 진리를 밝히시고 그것을 핵으로 하여 새로운 사회주의의 기본정치방식을 완성하여 세상에 내놓으신것은 세계정치계에서 으뜸가는 정치원소이다. 선군정치의 빛나는 정수로서만 이룩할수 있는 최대의 공적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불세출의 선군명장으로서 계시어 찬란한 주체혁명위업완성의 확고한 승리를 약속하시며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부그에 대처한 작전계획을 잘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미제침략자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과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때에는 살아서 항복이라도 할수 있었지만 이번에 무반항하게 달려들면 불을 즐기는 부나비의 신세가 되게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단호히 선언하셨다.

우리를 《보복》 하겠다고 떠돌던 미제는 저들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위대한 선군정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우리 인민의 철저한 반미의지앞에 기가 꺾이며 제풀에 주저앉고말았다.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나라들이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비위를 맞추던 그때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자랑하던 인민군대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마련된 이런 경이적인 군사기술들로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의 면상을 보기 좋게 잘갈고있었다.

력사는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영주제 105땅크사단에서 시작되고 시대의 흐름속에서 심화발전되어온

우리를 《보복》 하겠다고 떠돌던 미제는 저들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위대한 선군정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우리 인민의 철저한 반미의지앞에 기가 꺾이며 제풀에 주저앉고말았다.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나라들이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비위를 맞추던 그때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자랑하던 인민군대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마련된 이런 경이적인 군사기술들로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의 면상을 보기 좋게 잘갈고있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리비아국가 총민족대회 의장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리비아국가 총민족대회 의장 누리 아부 싸흐마인각하

나는 리비아독립전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리비아국가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나라의 안전과 안정,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는 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2(2013)년 12월 24일 평양

내각총리 박봉주동지가

로씨야 《모스토프스크》 과학생산련합체 총사장일행을 만났다



【평양 12월 24일 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박봉주동지는 24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 온 올레그 슈요브 로씨야 《모스토프스크》 과학생산련합체 총사장과 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전진수철도상, 리광군 합영투차위원회 위원장, 판재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평양 12월 24일 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박봉주동지는 24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 온 올레그 슈요브 로씨야 《모스토프스크》 과학생산련합체 총사장과 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전진수철도상, 리광군 합영투차위원회 위원장, 판재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대성산 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화환 진정

1월 23일 우리 나라 령해에 깊숙이 들어왔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96돐에 즈음하여 24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그녀의 동상에 화환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에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화환진정에 참가하였다.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동상앞에 놓여 있었다.

김정숙동지의 동상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 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에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화환진정에 참가하였다.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동상앞에 놓여 있었다.

김정숙동지의 동상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 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에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화환진정에 참가하였다.

각지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96돐에 즈음하여 김정숙, 최영희, 김정숙애군대학, 김정숙종합관학교에 모신 그녀의 동상에 24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진정은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공장, 기업소,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탕기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하리라》라는 글말이 쓰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시고 나라의 해방과 통일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화환을 진정하며 축하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96돐에 즈음하여 김정숙, 최영희, 김정숙애군대학, 김정숙종합관학교에 모신 그녀의 동상에 24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탕기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하리라》라는 글말이 쓰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시고 나라의 해방과 통일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화환을 진정하며 축하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96돐에 즈음하여 김정숙, 최영희, 김정숙애군대학, 김정숙종합관학교에 모신 그녀의 동상에 24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탕기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하리라》라는 글말이 쓰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시고 나라의 해방과 통일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화환을 진정하며 축하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성원들 꽃다발 진정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96돐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그녀의 동상에 24일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꽃다발들을 진정하며 축하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96돐에 즈음하여 김정숙, 최영희, 김정숙애군대학, 김정숙종합관학교에 모신 그녀의 동상에 24일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꽃다발들을 진정하며 축하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96돐에 즈음하여 김정숙, 최영희, 김정숙애군대학, 김정숙종합관학교에 모신 그녀의 동상에 24일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꽃다발들을 진정하며 축하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96돐에 즈음하여 김정숙, 최영희, 김정숙애군대학, 김정숙종합관학교에 모신 그녀의 동상에 24일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꽃다발들을 진정하며 축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재우즈베키스탄동포들 추모행사 진행, 재로동포들 우리 나라 대표부 방문, 일본종교인들 범요행사 거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재우즈베키스탄동포들이 17일 추모행사를 진행하였다.

주영일 우즈베키스탄 조선문화진흥회 《로인》협회 회장, 고대춘 부회장, 당무조직 일꾼들, 여러 동포예술단 단장들, 동포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주재 우리 나라 립시대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우즈베키스탄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모셔져있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대원수님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하고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주영일 회장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지 2돐이 되는 오늘 우리들은 그이의 빛나는 혁명행사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고 말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월명에서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시며 때와 혁명앞에 실로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고 격찬하였다.

그이의 세련되고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핵보유국, 인공 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으며 이것은 우리 동포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고 인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대로 조국방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끝없는 헌신적 노력을 걸으시며 인민을 위한 대건설전투를 빛나 승리에 이끄신다고 칭송하였다.

실로 지난 2년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의 정당성이 실천으로 확증되고 장군님의 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꽃피는 력사

가 특기할 나날이었다고 밝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시며 우리 조국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재우즈베키스탄동포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조국의 통일과 부강변역을 위한 자리에 더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선군혁명

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으며 아버지장군님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우리 나라 영화를 감상하였다.

이제 구주에 애경대승정이 발언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유훈을 관철하여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생활향상과 강성국가 건설에서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앞으로 일조우호친선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갈것이라고 그는 인정하였다.

이와 허중만의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경모의 정을 안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성대하게 범요를 거행한 이제구주 애경대승정을 비롯한 승려들과 신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께서 개척하고 이끌어 오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길에 더욱 굳게 뚫어 강성국가 건설과 조국통일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와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선군혁명

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였다. 막강한 권력을 갖추면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경제건설을 할수 있는

만 이것을 버리면 결국 미국에게 먹히고만다 이것이 김정일국방위헌장의 참으로 김일성대원수는 사상사론에 출중하시고 정치에 능통하시고 군사에 비범하신 문무겸전의 천출위인 이시다.

민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련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남측본부는 인터넷트롬베지에 게재한 글에서 북은 선군정치로 가장 훌륭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여주자의자들

이와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선군혁명

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였다. 막강한 권력을 갖추면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경제건설을 할수 있는

만 이것을 버리면 결국 미국에게 먹히고만다 이것이 김정일국방위헌장의 참으로 김일성대원수는 사상사론에 출중하시고 정치에 능통하시고 군사에 비범하신 문무겸전의 천출위인 이시다.

민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련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남측본부는 인터넷트롬베지에 게재한 글에서 북은 선군정치로 가장 훌륭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여주자의자들

이와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선군혁명

영원히 빛날 백두산녀장군의 혁명생애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의 력사를 수놓아오시고 조국통일의 길에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생애를 돌이켜보며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고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대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가장 철저히 옹호관철하시였으며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자신의 모든것을 깎고 바치시었다. 하기에 남녘겨레들은 김정숙어머님의 찬영생애를 위대한 혁명가, 훌륭한 민족적영웅의 한생이였다고 높이 칭송하면서 어머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칭송하고있다. 이는 한 통일운동단체 회원은 《백두의 녀장군으로 탄생하신 김정숙어머님의 령성을 맞는 뜻깊은 이 시각 우리 민족의 마음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가장 가까운 친우이시고 혁명동지이신 어머님에 대한 사투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뜨겁게 불타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김정숙어머님은 일찌기 10대에 벌써 김일성주석님의 전사가 되시어 손에 총을 들고 백두산에서 항일대전을 벌리신 백두산녀장군이시고 애방후에는 새 조국건설을 위해 활동하시는 주석님을 정력적으로 보좌해오신 위대한분이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국과 겨레를 위한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길에서는 살이도 영방, 죽어도 영방이라는 정신, 주석님의 사상과 로선에 어긋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없이 투쟁해나가는 혁명적 원칙을 불성코 지키고계셨다. 언제 어디서나 김일성주석님의 사상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하고

행동하시며 민족을 주석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전리적으로 표상하고 이끌어간 녀사의 그 고결한 품성이야말로 우리들이 따라배워야 할 몸집이라고 본다.》

남조선의 어느 한 녀성교수는 자기가 쓴 《성스러운 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격정을 토로하였다. 《김정숙어머님은 김일성장군님의 모습 그대로 환히 웃으시는 해방말의 태양같은 대장군이요 이면은 해방같은 녀장군이 곁에 있기마련이다. 녀사의 모습은 바로 대장군의 옆에 계시는 해방말의 모습이었다.

김정숙어머님은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민족사에 드려온 양을 견어내며 광명의 새시대를 열고 무궁토록 빛내이기 위해 총을 잡고 항일유격전에 참가하신 백두의 녀장군이시었다. 녀사께서는 그 존엄한 항일전쟁에서 김일성장군님의 녀력으로 살고 장군님의 지략과 용맹으로 싸우시어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하시였으며 이는 정녕 우리 겨레와 인류가 처음으로 맞은 위대한 녀장군이시었다.》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 조국통일위업에 커다란 공적을 남기신 김정숙어머님을 높이 칭송하여 자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숙어머님에 있어서 조국통일은 무조건 수행해야 할 민족지상의 과제였다. 하기에 녀사의 사색과 활동은 김일성장군님의 통일방략실현에 이어졌고 이남민중에 대한 애정으로 차있었다. 이 보살피심속에 이북의 각계 민족은 물론 사상과 리념, 정경과 신앙이 다른 이남의 각계 인사들도 인생의 바른길을 찾고 일일애국의 길에 나섰다. 남북연석회의 때 북에 가서 김일성장군님을 뵈고 돌아온 백범 김구선생이 녀사에게 지어주신 옷을 친지들에게 자랑하며 기뻐하셨고, 녀사께서 보내주신 전서

에 접한 서울의 한 녀성운동가가 그물을 흘리며 통일운동에 더욱 분발해나선것도 녀사의 무한한 은정에 안겨복하였을것이다. 진정 김정숙어머님은 통일사업에 한몸바치신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이다.》

언젠가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제자들에게 《김정숙어머님은 녀리의 제

방과 독립, 민족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민족의 영웅, 민족의 총신이었다.》고 하면서 《세군들도 민족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녀사께서 지시하였던 혁명정신을 본받아 조국통일사업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녘땅 곳곳에서 울려나오는 이 목소리에는 조국과 민족을 누구보다 열렬히 사랑하시며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깎고 바치신 김정숙어머님을 못 잊어 그리는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북과 남의 동료들이 서로 만나 화해와 단합의 장을 열어나가기엔 강력한 한 나뭇가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숙어머님의 발자취가 어떤 금강산에서 민족분열의 채움으로 통일대회를 진행하던 때의 격정을 지금도 잊을수 없다. 통일대회장에 어머니를 함께 모신듯 감정이 깊었기때문이다. 마치 어머니께서 마더룸은 우리들의 손을 허물없이 잡아 주시며 남북의 동포형제애를 함께 지어주실때도 놓치지 않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것이다. 참으로 백두의 녀장군께서는 오늘도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신다.》

부산의 한 지식인은 《6.15 통일시대를 열어오신 김일성장군님의 천출위인의 모습을 우러를 때마다 조국통일시대의 찬란한 태양을 안아올리시어 우리 민족의 앞길에 밝은 미래를 펼쳐놓으신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업적이 거치는 중대한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게 된다.》고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끝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을 터놓았다.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이신 김정숙어머님의 한생은 비록 짧았지만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불타고 조국통일과 민족통일의 앞날을 위해 바치신 가장 성스러운 혁명정신으로 하여 오늘날도 온 겨레의 심장에 남아 영원히 빛나고 있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남녘겨레의 마음은 그토록 뜨겁고 순결하며 어머니의 영생을 바라는 마음들도 그토록 절절했었다.

본사기자 장은 남

절세위인의 불멸의 선군업적

남조선 각계가 격찬

지금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전진길에 계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정이 뜨겁게 넘쳐흐르고 있다. 하기에 겨레의 마음에 합쳐 남조선인민들도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길 불세출의 선군정장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정치학교수 박봉현은 글에서 북의 선군정치는 오늘 세계의 중대판시사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선군정치는 군사선행, 총대주의의 정치, 권력을 무찌른 강군으로 만들

고 그것을 기동으로 하여 국정전반을 밀고나가는 정치방식이다. 그것은 근대사 국가이고 당이고 민족이라는 총대철학에 기초하고있다. 여기에에는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 국사로 내세우는 원칙, 마치고 낮우에 총대를 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져있다. 이것은 인류정치사에 류례없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다.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야말로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존엄하고 번성하는 민족으로 떠올리는 위력하고 의로운 보금이다. 참으로 김일성장군님은 사상사론에 출중하시고 정치에 능통하시고 군사에 비범하신 문무겸전의 천출위인 이시다.

민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련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남측본부는 인터넷트롬베지에 게재한 글에서 북은 선군정치로 가장 훌륭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여주자의자들

이와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선군혁명

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였다. 막강한 권력을 갖추면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경제건설을 할수 있는

만 이것을 버리면 결국 미국에게 먹히고만다 이것이 김정일국방위헌장의 참으로 김일성대원수는 사상사론에 출중하시고 정치에 능통하시고 군사에 비범하신 문무겸전의 천출위인 이시다.

민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련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남측본부는 인터넷트롬베지에 게재한 글에서 북은 선군정치로 가장 훌륭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여주자의자들

이와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선군혁명

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였다. 막강한 권력을 갖추면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경제건설을 할수 있는

만 이것을 버리면 결국 미국에게 먹히고만다 이것이 김정일국방위헌장의 참으로 김일성대원수는 사상사론에 출중하시고 정치에 능통하시고 군사에 비범하신 문무겸전의 천출위인 이시다.

민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련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남측본부는 인터넷트롬베지에 게재한 글에서 북은 선군정치로 가장 훌륭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여주자의자들

이와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선군혁명

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였다. 막강한 권력을 갖추면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경제건설을 할수 있는

만 이것을 버리면 결국 미국에게 먹히고만다 이것이 김정일국방위헌장의 참으로 김일성대원수는 사상사론에 출중하시고 정치에 능통하시고 군사에 비범하신 문무겸전의 천출위인 이시다.

민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련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남측본부는 인터넷트롬베지에 게재한 글에서 북은 선군정치로 가장 훌륭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여주자의자들

이와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선군혁명

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였다. 막강한 권력을 갖추면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경제건설을 할수 있는

만 이것을 버리면 결국 미국에게 먹히고만다 이것이 김정일국방위헌장의 참으로 김일성대원수는 사상사론에 출중하시고 정치에 능통하시고 군사에 비범하신 문무겸전의 천출위인 이시다.

민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련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남측본부는 인터넷트롬베지에 게재한 글에서 북은 선군정치로 가장 훌륭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여주자의자들

이와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선군혁명

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였다. 막강한 권력을 갖추면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경제건설을 할수 있는

만 이것을 버리면 결국 미국에게 먹히고만다 이것이 김정일국방위헌장의 참으로 김일성대원수는 사상사론에 출중하시고 정치에 능통하시고 군사에 비범하신 문무겸전의 천출위인 이시다.

정보원개혁에 대한 끈질긴 방해책동

그런데 《새누리당》 페거리들은 도리어 《막달》이라는 《도둑》이라는 그 후고 걸고들면서 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 회 참석을 거부해나갔으며 문제의 의원들은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피대를 두구면서 길길이 날뛰고있다.

일부 일부 민주당원들의 발언에 대한 강경대응인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 은 흑흑한 속심이 깔려있다. 그것은 민주당원들의 발언을 구실로 정보원개혁을 가로막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처사에 대해 남조선인민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최근 남조선에서 정보원선거 개입사건의 내막이 말쑥 드러나고자 하는데 인민들의 분노는 더욱 치솟고있으며 불법적인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보원의 남조선내 부정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합리한 개혁안으로 불합리한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보원의 남조선내 부정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합리한 개혁안으로 불합리한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보원의 남조선내 부정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합리한 개혁안으로 불합리한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보원의 남조선내 부정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합리한 개혁안으로 불합리한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보원의 남조선내 부정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합리한 개혁안으로 불합리한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보원의 남조선내 부정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합리한 개혁안으로 불합리한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보원의 남조선내 부정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합리한 개혁안으로 불합리한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보원의 남조선내 부정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합리한 개혁안으로 불합리한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보원의 남조선내 부정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합리한 개혁안으로 불합리한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보원의 남조선내 부정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합리한 개혁안으로 불합리한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보원개혁은 먼저 정보원이 자체개혁안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 《국회》에서 보장하는 식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놓고야말로 잘 알수 있겠다. 이것이 야말로 왜 개혁에 방해하는 것이 아닐수 없는 것인가. 실제로 피피정보원개혁 리들은 민주당의 요구대로라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다. 결국 하는수없이 민주당과 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어떻게 하나 빠질수만 있는 《새누리당》 페거리들은 이같은 민주당원들의 발언을 구실로 정보원개혁을 가로막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처사에 대해 남조선인민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보원의 남조선내 부정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합리한 개혁안으로 불합리한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보원의 남조선내 부정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합리한 개혁안으로 불합리한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보원의 남조선내 부정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합리한 개혁안으로 불합리한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보원의 남조선내 부정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합리한 개혁안으로 불합리한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보원의 남조선내 부정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합리한 개혁안으로 불합리한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보원의 남조선내 부정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합리한 개혁안으로 불합리한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보원의 남조선내 부정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합리한 개혁안으로 불합리한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보원의 남조선내 부정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합리한 개혁안으로 불합리한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보원의 남조선내 부정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합리한 개혁안으로 불합리한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보원의 남조선내 부정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합리한 개혁안으로 불합리한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보원의 남조선내 부정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합리한 개혁안으로 불합리한 선거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는 보수 사회의 민주주의적반감을 악화할까 가로막고 속내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정치현을 조장해 국정관행을 덮고 있던 유치한 수반》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 《북내부부직업》이 어쩌니 저쩌니 하며 정보원개혁을 거꾸로 파탄시키려고 발악하고있는 것이다. 얼마전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라는자는 정보원개혁과 관련하여 《개혁에 파탄될 대북정보를 놓치는 걸항을 보장하는 안된다.》고 고안했다. 이자는 정보원이 제출한 자체개혁안에 《개혁의지를 나타내도 반영》하였다고 추어올리면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하면 《북추출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과 《북의 정체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언는것보다 잃는게 더 많다.》고 피대를 두구었다. 동족을 걸고 서로라도 정보원개혁을 기어코 가로막으려는 피피보수페당의 흉계를 바로 여기에서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현실은 정보원을 《정권》안보의 도구로 삼고 그에 의거하여 독재체제를 유지하려고 발광하는 피피보수페당에게는 정보원개혁을 절대로 기대할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피피정권세력이 정보원개혁을 기를 쓰고 방해하는 조건에서 다른 길은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독재가 없는 민주주의상에서 인간강대국임을 오로지 자신들의 단결된 힘으로, 그리고 결합없는 투쟁으로 약의 소굴 정보원을 단호히 헤쳐내버려야 한다.

본사기자 은정철

부정선거무효와 집권자퇴진을 주장

남조선피피정권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협박의 방법으로 당선된 때로부터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항의투쟁이 벌어졌다.

19일 전라남도의 시민사회계, 종교계, 야당을 비롯한 각계층은 도 《의회》 앞에서 판관부정선거무효, 박근혜퇴진을 위한 집회를 가지었다.

집회에서는 시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선언은 민중이 권력기관의 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하여 집권자의 사과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해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거짓과 무기로 일관하였으니 사건수사를 막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규탄하였다.

저들과 생각을 달리하거나 자

기들을 비판하고 바란말을 하는 민중과 종교인들을 《중복세력》으로 규정하고 탄압을 가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는 무효이며 총대철학에 기초하고있다. 여기에에는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 국사로 내세우는 원칙, 마치고 낮우에 총대를 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져있다. 이것은 인류정치사에 류례없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다.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야말로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존엄하고 번성하는 민족으로 떠올리는 위력하고 의로운 보금이다. 참으로 김일성장군님은 사상사론에 출중하시고 정치에 능통하시고 군사에 비범하신 문무겸전의 천출위인 이시다.

민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련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남측본부는 인터넷트롬베지에 게재한 글에서 북은 선군정치로 가장 훌륭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여주자의자들

이와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선군혁명

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였다. 막강한 권력을 갖추면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경제건설을 할수 있는

만 이것을 버리면 결국 미국에게 먹히고만다 이것이 김정일국방위헌장의 참으로 김일성대원수는 사상사론에 출중하시고 정치에 능통하시고 군사에 비범하신 문무겸전의 천출위인 이시다.

민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련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남측본부는 인터넷트롬베지에 게재한 글에서 북은 선군정치로 가장 훌륭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여주자의자들

이와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선군혁명

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였다. 막강한 권력을 갖추면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경제건설을 할수 있는

만 이것을 버리면 결국 미국에게 먹히고만다 이것이 김정일국방위헌장의 참으로 김일성대원수는 사상사론에 출중하시고 정치에 능통하시고 군사에 비범하신 문무겸전의 천출위인 이시다.

민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련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남측본부는 인터넷트롬베지에 게재한 글에서 북은 선군정치로 가장 훌륭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여주자의자들

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남조선의 여러 신학대학 학생단체들로 구성된 민주주의를 위한 신학생연합이 19일 서울에서 시국제를 가지고 피피정권자의 퇴진을 주장하였다.

발언자들은 1년전에 있는 부정선거의 진상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아무런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다.

부정의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어 당선된 《대통령》은 퇴진하는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였다.

민중을 기만하는 박근혜는 물러나라고 하면서 그들은 집권자의 사퇴를 위한 시국선언운동들을 더욱 확대시킬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이와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

